

# 인권 감수성은 어떻게 움싹을 틔우나?

## 맛깔나고 풍성한 인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매뉴얼

글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인권교육의 목표는 분명하다. 참여자들이 인권의 가치를 자기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인권교육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 이 소박한 바람이 얼마나 거창한 바람인지 곧장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인권교육가의 고민은 깊어진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목표를 좀 더 낮춰 잡아 보기로 한다. 인권이 사람들의 삶 곳곳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권과 자신을 연결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도 갖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다 문득 평범하지만 놀라운 발견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은 이미 인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 다만 그 기억을 환기하고 잠들어 있는 세포를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과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게 인권교육가의 몫이라는 것.

아래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을 교육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면서 인권 이야기를 함께 풀어어나가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대표적인 활동 프로그램이다.

### 지금지금 보글보글, 맛깔스런 인권밥상 차리기

■ 열매: 나를 위한 밥상, 함께 나눌 밥상을 차리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그 밥상 위에 권리들이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 인권밥상 차리기는 참여자들 스스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만들고 나누고 짚어보는 활동이다.

■ 준비물: 여러 가지 빛깔의 색지, 크레파스, 매직펜, 가위, 밥상 그림

### ■ 진행 방법

- 1) 모둠별로 색지 등을 나눠주고 생선구이, 샐러드, 구절판 등 먹고 싶은 요리 그림을 5개 정도 그리게 한다.
- 2) 그림이 완성되면 그 위에 '○○를 위한 인권밥상'을 차린다면 반드시 올라야 할 권리를 적어달라고 한다. 권리 이름은 구체적인 사연이 떠오르도록 가급적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적도록 한다.

안전하게 자전거 탈 권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권리, 아줌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릴 권리 등의 예시를 미리 보여주면 좋다.

※ 누구를 위해 밥상을 차릴지는 교육의 주제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 대상 인권교육에서는 '학생을 위한 인권밥상' 차리기를 부탁할 수 있고,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이라면 '장애를 가진 나를 위한 인권 밥상' 차리기를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 3) 모둠별로 의논해서 기본으로 올라야 할 절실한 권리 요리 2가지, 그리고 다른 모둠에서는 찾아내지 못할 것 같은 특별한 권리 요리 3가지를 섞어서 장만하도록 부탁한다.
- 4) 작업이 끝나면 준비한 요리를 소개하고 커다란 밥상 그림 위에 붙여달라고 한다.
- 5) 풍성하게 차려진 요리들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던 권리는 없었는지, 가웃가웃 의문이 생기는 권리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더 이야기를 나눈다.
- 6) 인권교육가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소개해 주면서 그 권리가 과연 부당한 요구인지, 같은 이름의 권리를 똑같이 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없는지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 ■ 교육기를 위한 도움말

- <인권밥상 차리기>를 하다 보면 맛깔 나는 권리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한 학생은 '무릎 꿇지 않을 권리'를 내놓았고, 어떤 교사는 '허락받지 않고 똥 쌀 권리'를 준비했다. 어떤 노동자는 '일터에서 가까운 집에서 살 권리', '심부름을 하지 않을 권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 <인권밥상 차리기>는 음식의 힘을 빌려 참여자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인권 이야기를 좀 더 맛깔나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사에게 학생 인권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시설 생활인의 인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면, 참여자의 경계심을 푸는 일이 교육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

이 경우 밥상 차리기는 인권을 다루는 부담을 경감시킨다.

- 이 활동을 모둠별로 진행하면, 다양하고 기발한 권리가 등장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면, 참여자 각자가 자기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대개는 공개하기에 별 부담이 없는 이야기를 꺼내 놓지만, 어떤 참여자들은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 놓아 함께한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 참여자들의 의식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모둠별로 만든 요리를 '공동의 밥상'에 올려질지 말지 의사를 물어봐도 좋다.



'지금지금 보글보글, 맛깔스런 인권밥상 차리기' 프로그램

만장일치를 얻지 못한 권리 요리는 밥상에 올리지 않고 따로 분류해 둔다. 공동의 밥상에 오르지 못한 권리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집단의 권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가 가시화되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 밥상을 차려보면, 많은 권리가 공동의 밥상에 오르지 못하는 신세에 놓인다. 나중에 그 권리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무엇인지를 따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육가는 어떤 권리들이 밥상에 오르지 못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이야기들을 참여자들에게 건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 사람에 대한 보호주의나 학생다움에 대한 생각이 과연 정당한지, 이성애만 정상이라는 신화가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자존감 Up! 일곱 빛깔 무지개**

■ 열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은 스스로를 긍정하기 힘든 조건에 놓여 있다 보니 자신을 열등하거나 무력한 존재로 바라보기 쉽다. 이 부정적 자아상을 깨고 나오지 않는 한, 권리의 주인 되기도, 권한 강화도 불가능하다. <자존감 Up! 일곱 빛깔 무지개>는 자아 존중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들과 만나야 하는지, 우월감이나 자만심과는 어떻게 다른지 따져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 준비물: 여러 가지 빛깔의 색지, 매직 펜, 화이트 보드, 투명 테이프

**■ 진행 방법**

1) 참여자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준다. 기억의 숲을 더듬어 보면서 자존감이 향상됐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를 써보게 한다.

2) 종이에 적은 사연을 한 사람씩 들어본다.

※ 개별 발표를 힘들어 하는 분위기라고 판단되면, 종이를 걷어 교육가가 대신 소개해줘도 좋다. 좀 더 사연이 궁금한 종이 있으면, 주인공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3) 발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교육가는 끄덕끄덕 맞장구를 쳐주고, 그 사례들이 왜 자존감 향상으로 연결되었는지 맥락도 짚어준다.

4) 발표가 끝나면,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한 뒤 자존감이라는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래해 본다.

**■ 교육가를 위한 도움말**

- 참여자들이 자존감이 향상된 순간으로 꼽는 것들은 매우 다채롭다. 밝히기 힘들 법한 상처에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눠준다.



'자존감 Up! 일곱 빛깔 무지개' 프로그램

장애를 이유로 놀림을 받았는데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사람을 만난 이야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힘든 어린시절을 보내다가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 아님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온갖 고초 끝에 원했던 법률을 이끌어낸 이야기, 폭력을 휘두르는 옆집 남자를 제압했던 이야기 등 참여자들이 적어준 사연들을 분류해 보면, 자존감을 움트게 만드는 거름들이 대략 7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 ①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과 직면하기 ② 자기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구조적) 시선과 만나기 ③ 독립적인 삶 꾸리기 ④ 타인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지지받기 ⑤ 타인에게 기여하기 ⑥ 지지받고 친밀한 관계망 형성하기 ⑦ 개인적, 집단적 성취감 느끼기.

- 자존감은 흔히 홀로 일구어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적 존재’ 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존감은 사회적이고 집단적 역동 속에서야 벗어질 수 있는 당당함이다.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자존감이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를 발견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대(solidarity)’의 가치와 조우하게 된다.

- 더불어 이 활동은 참여자에게는 자기 삶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고, 인권 교육가에게는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다음 교육에서 어떤 내용과 경험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제적 인간을 소환하라!**

■ 열매: 인권침해 사건을 두고 맥락과 원인을 꼼꼼 따져보는 과정은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 사례를 좀 더 실감나게 만나게 할 방법은 없을

까? <문제적 인간을 소환하라!>는 사건의 주인공인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 초대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전문가의 망토’를 입힘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이르게 하는 활동이다.

■ 준비물: 사례지, 메모지, 준비된 배우

**■ 진행 방법**

1) 교육 주제를 잘 반영한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사례로 제시한다(실제나 가상의 사건 모두 좋다). 일례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진 사건,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한 사건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제시의 예〉**

2005년,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 안 아무개 교수는 교수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조교수(학과장도 역임한 적 있음)에서 강의전담교원(학칙에 없는 직책)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수용했다.

2년 뒤에도 학교 측이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자 안 교수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안 교수는 장애 차별에 기반 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소송을 제기했다.

**▶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 1. 대학 임직원 모두 중국연수를 가는데 안 교수만 제외시킴
- 2. 학장이 참여하는 회의 참여 배제

2)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한다. 인권활동가 또는 인권침해구제기관의 조사관 역할 등을 맡기는 것이다.

3) 먼저 모둠별로 피해자를 도와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질문들, 가해자로 하여금 문



'문제적 인간을 소환하라' 프로그램



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들을 궁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4)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그 사건의 가해자를 교육장 안으로 소환한다. 교육가가 직접 가해자의 역할을 맡아도 좋고, 보조 진행자에게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 5) 가해자가 중앙에 앉으면 참여자들에게 준비한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도록 부탁한다. 참여자의 말문을 자연스럽게 열게 하려면 가해자가 먼저 포문을 열어 자기 행동을 방어해 주면 좋다.
- 6) 이야기가 충분히 오갔다 싶으면, 가해자를 교육장 밖으로 내보낸다. 참여자들이 던진 질문 가운데 핵심을 잘 짚어낸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되짚어본다. 가장 대응하기 힘든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왜 대응이 어려웠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토론해 본다.
- 7) 시간이 허락한다면 모듈별로 문제점을 다시 조목 조목 정리하고,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정리해서 발표한다.

■ 교육가를 위한 도움말

- 가해자의 위치에 선 '문제적 인간' 을 교육장으로

불러오는 일은 실감나는 인권 현장으로 참여자를 끌고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장이 인권 현장으로 전환될 때, 참여자들의 인권 감수성은 더욱 예리하게 단련된다. 가해자가 눈앞에 있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도와야 할 주요 임무를 부여받은 참여자들은 인권침해를 낳는 편견이나 무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까지도 차곡차곡 발견해 낸다.

- 이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와 준비된 진행자가 필요하다. 너무 단편적 사례보다는 여러 쟁점이 섞여 있거나 사건의 진실이 숨겨진 사례, 참여자가 갖고 있을 만한 선입견을 건드릴 수 있는 사례를 꼽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참여자들은 어려운 과제와 만날수록, 더 높은 권한과 위치에 초대될수록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뽑아낸다. 참여자들에게 입힌 '전문가의 망토' 는 각자가 가진 경험, 지식, 감수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사건의 핵심

으로 다가가도록 돕는 장치인 것이다.

- 교육가가 '문제적 인간' 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는 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가슴에 역할 이름표를 붙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연극 속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좋다. 연극을 마칠 때에도 연극 밖으로 빠져 나가는 절차를 밟아주어야 한다. 참여자들이 극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끔 돕는 의식이다.
- 대개 인권침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기 행위를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거나, 쟁점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자 역할을 맡은 교육가는 사건의 본질과 쟁점을 꿰뚫고 있으면서 적절한 대응과 실감나는 연기로 참여자들의 논리 개발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 밖의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힘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 활동을 선부르게 시도했다가는 낭패를 볼 위험이 있다.
- 예를 들어 대학 사회도 하나의 조직인데 동료 교수들이 불편해 하는 사람과 같이 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로 청각 장애인 교수를 해고한 사례라면, 관계의 불편함이 장애차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화력이 교수 평가의 정당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은근한 배제 역시 차별일 수 있는 이유 등을 따져보면 좋다. 휴게공간에서 전기밥솥을 사용하다 일어난 작은 화재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고된 청소노동자의 사례라면, 잘못이 당사자에게 있는지 시설관리를 잘못된 사측에 있는지, 아무리 노동자의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해고에 이르는 잘못된인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빼

앗는 게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두발규정을 따르지 않아 징계 위협에 처한 학생의 사례라면, 학교가 두발을 제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두발규정은 누가 정한 것인지, 학생의 교칙 개정 요구가 있을 때 학교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지 등을 따져 주면 좋다.

- 때로는 교육가가 기대하는 인권 옹호 논리를 참여자들이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 엉뚱한 논리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국 출신의 여성을 며느리로 맞은 뒤 무시하고 그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어머니가 있다. 이때, 참여자들이 며느리를 지원한다면 "그렇게 구박하다 며느리가 도망하거나 이혼하겠다고 나서면 어쩌나?"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 며느리를 구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며느리 자리에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면, 시어머니와 결혼이주여성의 관계는 영원히 동등해질 수 없을 것이다. 교육가는 추가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이 취한 접근이 가진 한계는 없는지 짚어 보아야 한다.
- 이 활동에서 가해자의 역할을 참여자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 모듈별로 다른 사례를 나눠주고 각 모듈에서는 그 사례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선 사람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작업을 부탁한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사례를 받은 모듈은 가해자의 역할을, 나머지 모듈 구성원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쟁을 벌여보는 것이다. 이 형식은 여러 사례를 한번에 짚어보기에 수월하다.